

개발원을 떠나며

2007. 2. 13(화)

드디어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인간이란 아둔한 지라 자신이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존재임에도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욕심은 내기 마련인데, 저 역시 그동안 개발원과 언제나 함께 할 것처럼 생각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생각했다면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냉정하게 지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5개월, 제게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이란 숨막히는 책임감을 감히 받아들여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건복지현장의 인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있었기에 원장직을 수용하였고 그 이후의 29개월, 인력개발원의 소임과 사명에 연관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몸과 마음을 던지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보건복지 현장에 한층기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진 보잘것 없는 능력과 자산을 한껏 쏟아 부었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사실 복지정책의 연구자이면서 복지운동가를 자임해 온 저로서, 정부와의 친화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산하단체장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는 초기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복지부의 정책과 행정집행 방식에 문제제기자로서 때론 날선 자세로 때론 비타협적인 자세로 학자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과 기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했던 저의 이력이 산하단체장으로서의 처신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원장 부임과 함께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급 떠나면서 과연 이 부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을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이력이 제가 무조건적으로 '기관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개발원만능주의적 사고에 몰들지 않게 되도록 저를 제어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는 행정편의적 사고에 따라 개발원을 대하려는 유혹이 혹 있었다면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평가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개발원 초대 원장직을 내려 놓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제가 기억할 일이 개발원의 법정법인화와 청사마련, 그리고 일취월장한 교육규모와 대외사업 등등의 성과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지

만, 제 자신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기억들은 개발원의 조직적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개발원의 일상적인 일과에서부터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개발원 식구들에 대한 기억일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 행정실이나 교육운영실의 문의 열면 저보다 먼저 나와 부지런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 미더운 식구들, 원장이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물리는 것이 염려될만큼 가정사를 핑개치고 집안 어른들의 눈총을 마다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업무의 완수를 위해 일하던 식구들, 다산신이 강림한 결과라고 자축해 마지 않았지만, 출산 전의 고역스런 상황에서도 개발원을 위해 마지막 업무까지 챙기느라 영망이 된 얼굴이 되어서야 출산휴가단 들어갔던 임산부 주역들, 왜 워터링이라 명명이 되었는 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하에 인사동 골목으로 대방동 냉파결리집으로 전전하였던 개발원 내 주당단, 낙엽이 쏟아지던 개발원 마당 앞의 은행나무에서 낭만을 느껴보겠다고 이미 쌓인 은행잎을 다시 허공에 뿌려대며 사진을 찍어대던 우리 식구들, 집을 나르려 취직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등짝에 얹힌 짐 하나를 나르는 것조차도 결국 개발원의 미션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땀을 흘렸던 남성 식구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만큼 또렷히 찬상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여러 식구들의 그 모습이 있기에 저는 행복한 기억 속에서 개발원의 시간들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진 한계로 인해 여러 식구들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 무거운 멍든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중압감을 어쩔 수 없습니다. 연간 2만5천 명을 교육하였던 작년, 14억에 이르는 외부 용역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느라 두배, 세 배 늘어난 인건 앞에서 종종걸음을 뚫어야 했던 여러분의 일상도 생각해 보면 원장의 이름으로 너무나 과도한 희생과 열심을 강요했던 또 다른 결과였으며, 별다른 보상도 없이 오로지 원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단으로 복지부로 질병관리본부로 식약청으로 뛰어다니며 수익사업 확보에 열을 올린 것도 좀더 광활한 앞길을 개척해지 못했던 원장의 부족함을 메꾸는 과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흘로이 감수했어야 했던 수많은 힘든 시간들 속에 온전히 같이 해주지 못하고 외도하지 않았다해도 결국 방관하였던 그 책임도 제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허물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여기까지 와 준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무한정 고맙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자랑스러운 뿐입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지만, 개발원은 마냥 새로운 꿈을 펼치는 새 역사의 서막 앞에서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개발원이 가졌던 한계를 털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을 그리고 이급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기쁨을, 제가 지난 시간들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개발원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그 새역사가 단지 그저 한순간의 지혜와 한두사람의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성과 의지, 노력, 희생..... 이런 것들이 점철되면서 그 결과로서 서서히 새역사의 장은 열리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장정(戕征)에서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리하였듯 자신의 안위와 이익,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미션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단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기애 사심없이 열중할 수 있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끝내 그 결과에 기뻐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철처럼 더욱 단련되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의 끝이 보이지 않도록 땀흘려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겐 관대하면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같이 가고 있다는 동지애를 한시라도 부정함없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한 조직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상호간의 무한한 신뢰와 단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출신과 전공, 직분, 직급 등이 분열의 기반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조화의 토대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속에 한 사람 한사람의 리더십이 살아 숨쉬고 항상 창의적인 발상과 적극적인 자세가 존중받으며 고무되는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개발원을 자신들이 속한 위치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제단하고 활용하려는 수많은 분순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장애와 함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원의 생명력을 과연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여러분들은 개발원의 사명을 빙자하며, 개발원의 미래를 염려하는 듯하면서도 끝내는 개발원을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각종 의도와도 직면하면서 지혜롭게 개발원의 사명과 미션을 실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초대원장으로서 분충스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는 끝내 개발원을 지켜 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누누이 말씀드렸듯, 개발원의 주인은 원장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쉬이 쓰러질 수 있지만, 수십명의 주체들로 굳건히 뿌리를 박고 있는 조직은 쉬이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개발원의 주체로서 개발원의 혼과 정신을 위해 고민하고 때론 격렬하게 이를 논하면서도 끝내 찾아낸 결론을 중심으로 혼돈림없이 가는 41명의 주체들이 있는 이 조직은 분명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새역사를 한팔짝 비켜 나서서 바라보겠지만 끝내 여러분들의 길과 저의 길이, 여러분들의 꿈과 저의 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의 대해(大海)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운하를 파고 있기에 이곳을 떠나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같은 종착지에서 부등켜 안고 춤출 수 있는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떠나도 떠나지 않은 듯, 있어도 있지 않은 듯 그렇게 일상의 시간처럼 지금 이
순간을 견디려 합니다.

부디 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언제나 만나고 있기에...
그리고 또 보자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보아왔듯 지금도 보고 있듯 늘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기에...

그러나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이 꿈을 언제나 함께
하자"고.

2002
4:00
관보
김정국
이진호

신승룡
5백구구

1400
이진 홍순환
이상영 이복
신필진 소연
빈재홍 로미
임재림 행진
홍재 최 필근
지우혁 함기근
김상희 옥도미

정영준

신승룡
백종현

신승룡
(백종현)



한국경제신문 14월 14일

한승원 한리

이진호
이진호

백승우

14월 이주빈 리
홍승룡 한리

이주빈
한승룡
장원진
이치범

이진호 한리
강기근 군안목?
강기근 리

이진호 김
이진호 한기근
이진호 곽기근